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운영위원장 누가 뛰나?

현재 윤수봉 의원 단독... 향후 출마 예정 의원 더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의회 사무처, 정무수석, 정책협력관실을 관장한다.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원들과 함께 의회운영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가교역할을 한다. 의회가 제 역할을 잘 하려면 원만한 의회 운영위원장이 키를 잡고 노를 잘 저어야 배가 나아간다고 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윤수봉 의원

장 선출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해 아직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며 상황 파악 및 탐색에 머무르고 있다. 맨 처음 출마 의사를 표한 의원은 윤수봉 의원(완주 1선거구)이다. 윤 의원은 의원 간의 가교역할과 원만한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운영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나, 아직 의장 등 선거의 추이를 보아가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두 명이나 있어 어느 의원이 더 출마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의장 선거에 따른 이합집산 결과의 추이를 보아가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다.

다만 윤수봉 의원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열심히 표발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서남대학교 졸업 후 전북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에 재학 중이며, 민학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학구파 의원이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의정 목표로 삼아 신발끈을 동여매고, 완주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성실한 의원으로 정평이 나고 있어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 많다. 장애인문제와 통일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북 장애인정책협의회 자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완주군의회 7대와 8대 연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돼 7대에는 의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8대에는 군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기초의회에

서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췄다. 이후 더 큰 봉사를 위해 12대 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원내 수석부대표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고, 의회 집행부와 의원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의원과 회노예락을 같이하는 활동으로 초심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민들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난 팽탕 국회를 닫지 않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는 살아 움직이는 의회, 도민의 민생을 잘 챙겨 적극적으로 도민의 삶이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운영위원장 선거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후 마지막 날에 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다.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26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 27일 상임위원장 선출 후 28일 치르게 된다. 아직 선거일이 한달여 남은 관계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

전북자치도의회, 베트남 다락성 인민의회와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9일 의정실에서 베트남 다락성 인민의회 전후홍 부의장 및 대표단 일행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0년, 전북자치도의회와 다락성 인민의회 간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해 협의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의회 대표단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내에 베트남 이주인이 노동자, 학생 등 1만5,000명에 달하는 등 베트남은 우리와 생활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라며, "특히 14개 시군에 베트남에서 온 계절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후홍 다락성 인민의회 부의장은 "도의회의 운영사항 및 전자회의 시스템 시연 참관 등을 통해 의회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우며 우정을 쌓아가자."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상임위별 현장의정활동 이어가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과 28일에 관내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고부면 자애자립장을 방문하여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장 등 자활기반시설에 대해 살펴보고,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웅동면 산성정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생산 처리공정에 대한 시설을 둘러보고, 생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산·학·연·병·관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심점인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부 능선 넘어 크루즈관광, 사활 걸고 준비"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 관계기관과 크루즈 기항지·부안 관광자원 합동 시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 지난 28일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합동 현장답사에는 관광산업과 등 전북자치도 관계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전북지사장 등이 함께 했으며, 답사는 부안의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서 크루즈 기항지로 부상한 벽포항 묘박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합동 현장답사는 지난 23~24일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과 전주 일원을 둘러보고 간 이후 크루즈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김정기 의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김정기 의원을 비롯한 현장답사팀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의, 개암사 전통사찰, 워케이션센터, 해변도로를 답사하면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답사팀은 실제 크루즈 모박지로 부터 벽포항까지의 이동구간을 보트를 타고 직접 경험해 보며 부안군이 1단계 크루즈 사업으로 추진하는 텐더링 방식의 크루즈 기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기 의원은 "중국 현지의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들이 부안을 기항지로 하는 2차3일 크루즈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의향을 밝히며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중국여행사를 통한 중국 내 전북 크루즈 상품 판매는 전북의 관광자원 가치를 중국 전역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북에 대한 파생 관광상품 개발까지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 참가기업 모집

6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전북자치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선도해 나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

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의 전북 공동관 및 단독관에 참가할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국제박람회로 세계적인 혁신기술들과 제품 등 전 세계 산업과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전시회 중 하나이다. CES 2025에 참가할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문화재단 등 제주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문정공 김구 선생이 이어준 인연 재조명

전북자치도, 오늘까지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 심포지엄'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문화재단 등 제주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과 제주의 돌 문화를 주제로 문화교류 행사 차원으로 진행된다. 전북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말 제주 판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발담' 쌓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제주도민의 숙원과제인 바닷바람을 즐기고 땅의 경계를 알 수 있게 해 제주도민의 난제를 해결해 준 훌륭한 인물로 평가된다. 발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발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대 교수의 '제주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대중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둘째 날은 지포 김구 관련 돌문화 유적(돌 문화 마을, 공원, 기념관 등)을 현지 답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과 제주도 특별자치도민들에게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을 매개로 한 교류의 역사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학술의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포 김구 선생 관련 판소리 공연' 등의 식산행사도 준비돼 있다. 마지막으로 김동진 제주대 교수가 총평을 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 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인 전북과 제주의 교류와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홍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2회 특별자치 시·도의회 의정박람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29일 열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세종·강원·제주 의회와 동반성장 연대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여 자치분권 모델 완성·지방시대 선도 협력사업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9~30일 이틀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특별자치 시·도의회 의정박람회'에서 세종·강원·제주의회와 함께 지방자치 모델을 완성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는 전북·세종·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세종시 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 설명회 발표, 특별법 발원 방향 토론회, 상생 협력 특콘서트, 정책지원관들의 현장 이야기, 지역문화 소통 공연 및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개 시도의회는 조직·재정·인사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조,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상호협력,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및 정보공유, 특별자치 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이 지난해에 이어 세종에서 마련된 것이 뜻깊다."며 "서로의 성공을 도울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더 특별한 지방자치치 위해 우리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면서, 지방자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 2024년 전북이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분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된 의정박람회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어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